

이마트 “할인경쟁 중단”

삼겹살 등 종전 할인가 환원 대형마트간 경쟁 진정 국면

일부 생필품 가격을 놓고 ‘할인 경쟁’을 벌였던 신세계 이마트가 경쟁을 중단하고 애초 제시한 할인가 수준에서 제품을 판매하기로 했다.

이마트는 8일부터 삼겹살 등 22개 품목에 대해 경쟁사에서 더 싸게 제품을 내놓아도 대응하지 않고 원래 신문 광고 등으로 제시했던 할인가에 판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마트는 지난달 7일 국내산 삼겹살(100g)을 1천550원에서 36.8% 할인된 980원에 판매하는 등 주요 생필품 12가지에 대해 가격을 인하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같은 달 15일에는 고구마, 오징어 등 10개 품목을 할인 상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신문 등에 광고를

냈다.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이 품목들을 이마트 가격보다 더 싸게 판매하겠다고 경쟁에 나섰고 시간이 지날수록 3사 매장에서 팔리는 제품 가격은 계속 내려갔다. 그러나 이날 이마트가 더는 할인 경쟁을 하지 않겠다고 함에 따라 할인을 거듭하던 생필품들의 값이 최초 제시된 할인가 수준으로 올라갔다. 일부 점포에서는 700원 밑으로 내려갔던 국내산 삼겹살(100g)은 오는 8일부터 이마트에서 다시 980원에 팔린다.

이마트가 생필품 가격을 애초 할인가로 돌려놓음에 따라 대형마트간 할인 경쟁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롯데마트는 “이마트가 가격을 인상하는지 지켜보고 값을 올렸다면 그와 동일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경기 해빙 시그널?

광주지역 백화점들 재테크 강좌 속속 개설

경기가 회복 기미를 보이면서 펀드 등 재테크 관련 강좌들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주지역 백화점들이 문화센터 봄학기 강좌에 금융 관련 특강들을 잇달아 선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재미있는 금융소풍 이야기’ 특강(26일)을 열어 2010년 증시전망과 함께 펀드, 저축, 보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전문가 초청

(27일 오후 1시30분) 특강을 준비했다. 강사는 특강에서 100억대 부자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했으며 향후 10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들려준다.

또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재미있는 금융소풍 이야기’ 특강(26일)을 열어 2010년 증시전망과 함께 펀드, 저축, 보험 등을 분석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전문가 초청

특별 강좌로 3월3일~24일까지(매주 수요일) ‘금융 재테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준비했다. 4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 강좌에서는 최근 주식, 펀드 동향, 2010년 글로벌 경기 및 국내 경기 등을 살펴보고 투자에 적절한 상품을 찾아본다.

광주신세계백화점도 ‘2010년 펀드에서 살아남기’(3월8일) 특강을 준비했다. /이은미기자 emlee@



백린타인데이 커플티 할인

백린타인 데이를 일주일 앞둔 7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매장에서 젊은 고객들이 커플티를 살펴보고 있다. 이 백화점 라코스테 매장은 8일부터 13일까지 연인들이 커플티를 구입하면 10%를 할인해준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광주지역 백화점 “설 연휴 이틀 쉽니다”

대형마트는 설날도 영업

지난해 매출 감소를 우려해 명절 휴무를 축소했던 지역 백화점들이 올해 설에는 이틀씩 쉽니다.

반면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명절 당일에도 영업을 한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광주신세계 백화점은 연휴기간 중 설 당일인 14일과 다음날인 15일 이틀간 영업을 하지 않는다. 광주신세계백화점 관계자는 “올해 연휴가 짧게데다 경기도 좋아졌기 때문에 휴무를 이틀로 정했

다”고 말했다.

대신 오는 12일까지 영업시간을 30분 늘려 저녁 8시30분까지 매장을 운영하고 13일에는 연장없이 저녁 8시에 영업을 마감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현대백화점 광주점도 설 당일과 다음날 이틀씩 쉬기로 했다.

이들 백화점 역시 설 전날까지 명절 선물 등을 사려는 고객들이 많이 몰릴 것으로 보고 영업시간을 30분씩 연장한다.

신세계 이마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마트는 명절 당일에도 영업을 할 예정이다. /이은미기자 emlee@

농협, 농약·비료 가격 최대 19.3% 인하

농협을 앞두고 비료와 농약 가격 200원에서 1만650원으로 19.3% 인하기로 했다.

올해 처음 출시하는 맞춤형 비료인 ‘맞춤 1호’(20kg)는 1만5천950원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성분 비율이 유

사한 비료가 1만8천850원인 점에 비추면 15%가량 싸게 공급하는 셈이라고 농협은 설명했다.

또 유기질비료인 ‘왕중왕료알’(20kg)은 8천원에서 7천800원으로 2.5%, 농약 ‘후라단임제’(3kg)는 4천원에서 3천700원으로 7.5% 싸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중소형 테마주 비중 줄이고 IT 관련주에 지속 관심을

지난주 그리스에 이어 포르투갈, 스페인 등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악화 소식이 다시 한 번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다.

이에 따라 투자심리 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고, 그로 인한 시장의 부담 또한 가시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과 글로벌 경기 회복 속도의 둔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장의 조정이 깊어지면서 주된 관심사는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이다. 단기적으로는 지지선 확보가 중요하다.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으니 선블리 예단하 기보다는 향후 가능한 지지선들을 설정해 보고 반등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서기를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의 하락에 버금가는 강도의 강한 반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의미 있는 저점 확인을 유보할 필요도 있다. 이번 경우는 1,600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무산된 상황에서 유로존 사태가 불거졌다.

유로존 국가들이 신뢰성 있는 재정 감축 방안을 만들고 EU나 ECB(유럽중앙은행) 차원에서 지원이 확인되기까지 시장은 당분간 불안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이 과정에서 주가의 추가 하락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상태가 최종적인 채무상환 불능으로 결론지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당장 시야에 들어오는 지지선은 두바이 사태 당시 형성했던 저점인 1,520선이다. 물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1,500선을 하향 이탈할 수 있다.

주말 미국 증시가 극적인 반등에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증시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주식 비중을 다소 줄이고 유로존 국가들의 대응 추이를 지켜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투자 전략으로 IT와 자동차 대표 종목,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항공, 해운의 대표종목, 그리고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 받고 있는 통신과 유틸리티 등은 비중을 유지하기를 권고한다.

반면, 단기변동성에 취약한 중소형 테마주의 경우 최근 신용잔고 급증에 따른 수급 부담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고 대응해야 할 것이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좋은 보창기를 쓰십시오

www.kpr.com

국제보창기

본점 (062) 227-9940
 수원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부산점 (063) 851-2422

(주)제주무궁화관광

제주도 여행 **89,000원**

제주 올레길 1코스 투어 1일 2만원

목포 출발	목동 출발	제주도 여행 패키지
79,000원	85,000원	159,000원 (이유-숙박) 179,000원 (숙박-이유)

문의: 064-744-1109

대한민국 최부분

신동식품 명인지정

신동식품은 1982년 설립된 이래 2009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취득하고, ISO 22000 인증 획득을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최상의 맛과 품질을 추구하는 신동식품의 명인지정 제품은 최상의 맛과 품질을 자랑합니다.